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方向에 관한 研究

- 輸出市場確保를 中心으로 -

文 元 錫

< 目 次 >

- | | |
|-------------------------------|---------------------------------|
| I. 序 論 | 2. 投資效果分析 |
| II. 海外直接投資의 概念 | IV. 輸出市場確保를 위한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方向 |
| 1. 海外直接投資의 定義 |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
|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 및 類型 | 2. 輸出市場確保를 위한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方向 |
| 3.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 V. 要約 및 結論 |
| III.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投資效果分析 | |
|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現況 | |

I. 序 論

1962年 第1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을着手한 이래 우리나라는 輸出을 基盤으로 한 對外指向的 工業化를 통하여 高度成長을 지속해왔다. 賦存資源이 貧弱하고 狹小한 國土위에 過剩人口를 포용하고 있는 우리經濟與件에서 볼때 比較優位에 입각한 國際貿易의 開發을 통해 經濟成長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바로 輸出主導型開發戰略의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開發戰略의 成功的 推進으로 그동안 高度成長과 產業構造改編이 이루어짐으로써 世界속의 韓國으로 발돋움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世界속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輸出比重은 1962年の 0.05%에서 1982년에는 1%이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우리의 輸出順位는 世界の 밑바닥에서 '71년에 31위를 확보하고 '82년에는 16위로 당당 뛰어 올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輸出伸張은 輸出用原資材의 輸入과 그의 加工을 통한 輸出패턴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경제는 世界經濟環境의 變化로 심각한 영향을 받아왔다.

1970년에 들어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不況이 등장하였고 두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는 世界不況을 더욱 深化시켰다. 이 때문에 1977년부터 우리나라의 輸出伸張勢는 급격히

鈍化되었다. 이는 自國産業의 保護를 위한 各國의 非關稅障壁의 強化와 특히 韓國을 위시한 先發開途國에 대한 先進諸國들이 輸入規制強化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世界經濟의 急速한 回復이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與件에 있고 産業調整遲延에 따라 先進國들의 斜陽産業에 대한 保護와 支援이 強化될 것이며, 開途國들의 積極적인 工業化政策으로 輸出攻勢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와같은 各國의 輸入規制傾向은 더욱 蔓延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先進諸國의 保護貿易主義는 對外依存度도 높은 우리나라經濟, 특히 지난 20년간 經濟發展의 원동력이 되어온 輸出産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國內에서는 輸出不振에 대한 근본적인 돌파구로서 現地生産·販賣體制를 확립할 수 있는 海外直接投資의 필요성이 크게 提起된다. 왜냐하면 우리여건에서 볼때 保護障壁을 타개하는 동시에 比較優位産業을 海外에서 活用하여 우리의 輸出市場을 持續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이와 아울러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資源의 安定的 確保를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以上の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概要와 더불어 韓國의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그 問題點을 考察하고 앞으로 輸出市場確保를 위한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海外直接投資의 概念

1. 海外直接投資의 定義

海外直接投資(Foreign Investment)는 生産要素의 國際的 移動의 일환인 國際資本移動(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의 한 形態¹⁾라고도 한다.

國際間的 資本移動은 償還期間의 長短에 따라 短期資本移動과 長期資本移動으로 區分되며 長期資本移動은 다시 企業經營參與如否에 따라 直接投資와 間接投資로 구분되고 있다. 投資先이 事業經營에 直接 參與하는 경우가 直接投資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가 間接投資이다.

國際資本移動은 또 投資主體에 따라 民間投資와 公共投資로 區分되어지기도 한다. 個人 및 私企業이 投資하는 경우가 民間投資이며 政府 또는 政府機關등의 公共機關인 경우가 公共投資이다.

이렇게 볼때, 海外投資란 民間資本의 海外直接投資를 指稱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①該當企業體에 대한 經營參加를 목적으로 外國의 既存企業의 株式을 取得하거나 또는 既存企業을 그

1) Kindlebrger and Liners,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D. Irwin, Inc. 6th ed, 1978, pp.454-455

대로 買收하는 경우, ②外國에 새로운 完全子會社(100%支配의 경우) 또는 合作投資로 現地法人體를 設立하여 그 株式을 保有하는 경우, ③海外事業活動의 목적으로 事業用的 實物資產을 取得하고, 支社, 營業所, 工場등을 新設하고, 既存工場등을 買收하는 경우, 혹은 既存의 支社, 子會社, 工場등을 擴張하는 경우, ④또한 長期貸付라 할지라도 母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貸付등과 같이 貸借關係에 經營參加의 要素가 수반된다면 海外直接投資에 包含시키고 있다.²⁾

한편 間接投資는 事業經營에 直接 參與하지 않고 單純한 資金運營을 목적으로 配當 또는 利子의 收入을 위하여 外國企業의 株式 및 社債買入, 外國政府의 公債買入, 또는 外國政府와 企業에 대한 長期資金의 供與등의 方法으로 資本을 投資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海外直接投資는 그것이 갖는 複合的이고 多樣한 측면에 따라 諸見解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는 企業의 經營權을 수반하는 長期資本이라 定義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資本移動에는 資本뿐만 아니라 技術이 동시에 이전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經營「노우·하우」도 이전되므로 單純한 資本만의 投資와는 달리 資本·經營의 패키지(package)의 이동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겠다.³⁾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 및 類型

이러한 뜻을 지닌 海外直接投資는 投資의 限界利益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그 구체적인 動機와 目的은 收益性 이외에 投資國의 대내외적 經濟事情은 물론, 投資企業의 經營目標 및 投資相對國의 投資環境 등 複合的인 要因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海外直接投資의 各類型은 相互排除的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類型에 1次的 動機가 있다면 다른 類型에 2次的 動機를 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이와같이 海外直接投資를 그 進出目的이나 動機에 따라 諸類型으로 分類⁴⁾될 수 있지만 중요한 類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資源確保型 海外直接投資

資源確保型 海外直接投資는 貿易指向的인 것이 아니고 貿易創造의 動機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國內에 부족한 原油, 鑛物, 山林資源等 各種 資源을 長期安定的으로 確保調達하기 위하여 資源保有國에 진출, 開發輸入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대체로 投資規模가 크고 長期間의 投資를 要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資源民族主義에 따른 政治的 危險때문에 投資目的達成이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된다.

2) 潘柄吉, 國際經營論, 1981, p.242

3) 池間誠, 山澤逸平, 直接投資, 「國際金融講座」東洋經濟新報社, 1970, p.43

4) 海外直接投資의 諸類型으로서 ① 資源確保型 ② 勞動指向型 ③ 市場指向型 ④ 寡占指向型 ⑤ 生産 및 市場의 國際化指向型 海外直接投資 등으로 分類될 수 있다.

그리고 資源確保指向型 海外直接投資는 단순히 資源의 開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資源을 개발, 제품화, 販賣가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다.

2) 生産要素指向型 海外直接投資

生産要素中에서 예컨대 資本에 비하면 勞動力의 移動은 法的制限이 많으며, 土地는 移動性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풍부한 生産要素를 찾아서, 특히 國內勞動力의 상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국가가 自國의 勞動集約的 産業을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임이 저렴한 국가에로 移轉함으로써 比較優位를 강화시켜 현지로 부터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한 海外直接投資이다.

이러한 比較優位패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生産要素指向을 위한 投資는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와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사이의 國際分業을 재편성함으로써 조화있는 교역의 증진을 꾀하게 된다.

과거에 미국기업들이 西유럽 및 日本에 直接投資로 진출한 것은 다이나믹하고 확장하는 市場을 침투·장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저렴한 生産要素(특히 노동력)의 活用に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근래에는 미국·일본등의 기업들이 東北亞 및 東南亞地域등을 대상으로 하는 生産施設投資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低賃金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시 생산성을 감안한 低賃金을 따라 東南亞地域에 봉제공업부문에 直接投資를 확대하고 있다.⁵⁾

이상의 두가지 類型을 貿易指向型 海外直接投資라고도 하는바 이는 곧 국내에서 比較優位에 있는 産業의 資本, 기술, 經營能力을 海外에 移轉시켜 相互補完的 關係를 갖게 함으로써 양국간의 分業을 통한 貿易增大는 물론 제 3국에 대한 競爭力強化를 꾀하고자 하는데서 연유되는 것이다.

3) 市場指向型 海外直接投資

이는 輸出商品市場을 開拓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比較優位에 있는 産業을 해외에 移轉시켜 同産業製品을 被投資國의 市場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獨占的으로 또는 販賣하기 위한 投資로서 被投資國의 市場規模의 크기와 潛在力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相對國의 높은 關稅, 非關稅의 모든 貿易障壁을 극복하기 위한 海外直接投資로서, 특히 加工業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工業原料의 確保라는 消極的인 動機에서 부터 國際마케팅에 의한 海外市場開拓 및 擴張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된 海外直接投資形態로 볼 수 있다.

그러면 海外直接投資는 어느 段階에서 始作되는가? R. Vernon의 Product life cycle⁶⁾에 의

5) 潘柄吉, 前掲書. pp.251~252

6) 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Lxxx, may, 1966, pp.190~207

하면 輸出의 本格的인 擴大期에서 輸出障壁에 부딪치기 시작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시작된다고 한다. 卽 신제품개발→國內需要의 開發→輸出→海外直接投資→逆輸入의 過程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圖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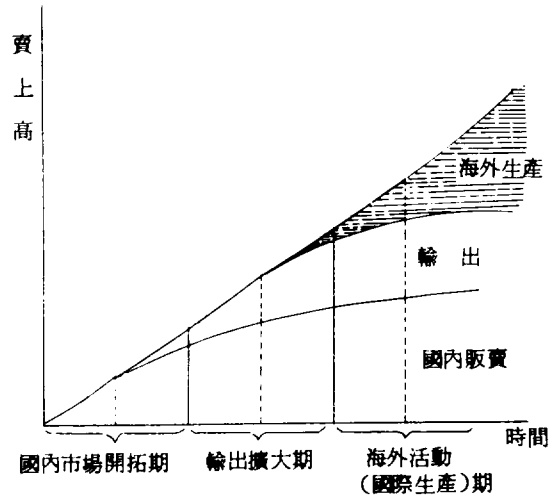
〈圖II-1〉 企業의 成長過程

輸出障壁으로서는 ①比較生産費의 變動, 輸出競爭力의 低下 ②關稅, 非關稅障壁, 運送料, 保險料, 市場開拓費等 輸出去來코스트의 상승 ③競爭相對國의 進出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Vernon의 學說은 先進國의 製造業者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海外直接投資를 輸出障壁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日本의 事例를 보면 資源開發 역시 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70년대에 세계적인 資源波動 및 資源保有國의 民族主義高揚등의, 요인으로 本格化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海外障壁投資와 輸出의 選擇問題는 輸出障壁의 有無에 따라 決定될 성질의 것이다. 卽 輸出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擴大될 전망이라면 海外直接投資의 誘因은 그만큼 적지만, 輸出障壁이 높아갈수록 그만큼 海外直接投資의 誘因은 커진다는 것이다.



3.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海外直接投資는 資本과 技術 그리고 經營의 패키지(Package)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投資雙方國의 國民經濟에 諸影響을 미치게 된다. 海外直接投資는 주로 民間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投資企業의 收益性向上과 企業成長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지만 海外直接投資의 影響은 相互關聯下에 多岐的인 것이기 때문에 當該國의 産業構造와 經濟成長에 複合的으로 作用하게 된다.

海外直接投資가 미치는 經濟上의 效果를 投資國의 立場에서 살펴 보면

(1) 國際收支面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資本流出은 國際收支表上 資本計定의 支出項目에 計上되어 國際收支의 惡化要因으로 作用하지만 長期的으로는 投資에서 發生한 利子·配當등의 投資收益이 貿易外去來의 受取項目에 計上되어 國際收支의 改善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또한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機

械設備, 中間財 등의 誘發輸出增加와 國內投資의 減少에 따른 原材料의 輸入 減少결과로 貿易收支는 改善되어 國際收支의 플러스효과를 가져오는 反面, 海外直接投資에 따른 現地生産으로 投資相對國에의 輸出減少 및 제 3 國에의 輸出機會減少등 輸出轉換과 逆輸入의 增大는 貿易收支의 惡化要因으로 國際收支의 마이너스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海外投資는 短期的으로는 投資國의 國際收支의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오나, 長期的으로는 플러스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實例로 1960년대 후반의 미국에서는 對外投資가 每年 30 億달러 規模를 웃돌아 弱화된 美國의 國際收支 포지션을 위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對外投資가 支出項目으로서 직접적으로 國際收支를 惡化시키는 것은 對外投資가 활발한 1973년 日本의 國際收支의 惡化傾向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과거의 對外投資에서 발생한 利子, 投資收益의 受取가 同期間에 年間 40 億달러의 規模에 이르러 對外投資에 따른 支出을 웃돌게 됨으로써 오히려 國際收支의 改善效果를 가져온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⁷⁾

2) 産業構造面

海外直接投資의 形態와 그에 따르는 輸出入을 통하여 産業構造에도 影響을 미친다. 예를 들면 斜陽産業의 海外移轉은 投資國의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寄與한다. 그러나 高度技術分野의 海外進出은 오히려 投資國의 國民經濟에 跛行的 效果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輸出轉換, 逆輸入 등은 그만큼 當該産業의 沈滯을 가져오게 된다. 또 海外直接投資는 國內投資와 무관할 수도 있으나 一般的으로 國內投資와 代替關係가 크다는 면에서 보면 投資國經濟의 産業構造에 직접 影響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先進國의 事例를 보면 日本의 경우는 섬유, 家電, 鐵鋼 등 勞動集約的分野의 海外移轉으로 産業構造高度化에 寄與한 반면, 美國은 化學, 機械 등 高度先進技術分野의 海外進出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雇傭面

海外直接投資는 雇傭效果面에서도 그대로 波及되어 海外直接投資가 國內의 雇傭機會를 減少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國內에서는 遊休되고 있는 經營자원, 資本이 存在하지 않고, 한편 失業의 壓力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 海外直接投資는 그만큼 國內投資를 減少시켜 그에 對應하는 雇傭機會를 剝奪하게 된다. 또한 現地生産이 輸出에 代替되는 만큼 輸出品生産이 減少되어 雇傭機會의 喪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는 遊休經營資源 또는 資本이 有利한 投資機會를 잡아 海外에 移轉됨으로써 國內投資量이 이에 따라 減少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는 國內에서는 더이상 유치한 投資機會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상정할 수 있

7) 池間誠, 山澤逸平, 前掲書, p.54

는 것이다. 또한 海外投資로 인하여 本社雇傭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海外就業의 機會가 발생한다는 점이 看過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볼때 海外直接投資는 投資國의 輸出減少 또는 雇傭減少의 일시적 要因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海外投資로 이러한 輸出入에 대한 負의 效果가 正의 效果에 의해 유발된 수출의 純增加分은 當該產業 및 關聯產業에 있어서 雇傭기회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Ⅲ.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投資效果分析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現況

우리나라에 있어서 海外直接投資의 範圍⁸⁾은 ① 外貨證券의 取得, ② 償還期間 1년이상인 貸付, ③ 海外不動產取得, ④ 契約期間 또는 領收期間이 1년을 초과하는 技術用役, ⑤ 回收期日이 3년을 초과하는 延拂輸出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韓國의 海外投資의 範圍는 단순한 技術用役 및 延拂輸出을 포함하여 과대計上되고 있는 바 本稿에서는 이러한 形態를 제외한 本來의 定義에 근거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1) 概 況

韓國企業이 최초로 海外直接投資를 한 것은 大韓重石鑛業이 미국내에 貸貸目的으로 不動產을 취득한 것이나 1967년까지는 實績이 거의 없었고 1968년에 韓國南方開發이 인도네시아에 山林開發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지게 되었다.⁹⁾ 그후 1970년에는 建設業, 貿易業 등의 投資가 開始되었고 1973년에 이르러서는 製造業投資가 着手되었으며,¹⁰⁾ 海外直接投資의 戰略部門이라 할 수 있는 鑛業投資는 1978년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表Ⅲ-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2年末 現在 韓國의 海外直接投資累計額은 총 458件에 338百萬달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清算分을 제외한 投資殘額은 352件에 290百萬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投資規模面에서 海外直接投資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海外資源開發輸入에 역점이 두어진 1978년 이후의 일로서 1978~1982년의 5년간 海外直接投資實績은 韓國企業海外直接投資累計額의 약 76%에 達하고 있다.

특히 1981년 및 1982년에는 海外直接投資件數面에서는 前年對比 23% 및 11.1%의 증가에 그쳤으나 金額面에서는 90.0% 및 210.5%나 크게 증가하여 件當 投資規模의 대형화 現象

8) 韓國銀行, 韓國의 外換管理, 1981, pp.431~432

9)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와 實務가이드, 1982, p.84

10) 韓國銀行, 前掲書, p.430

(表Ⅲ-1) 年度別 海外直接投資實績 現況¹⁾

(金額:百萬달러)

	1977以前 ²⁾		1978		1979		1980		1981		1982		果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投資 (A)	181	81.7	86	43.4	52	22.8	44	21.1	45	40.1	50	129.4	458	338.4
清算 (B)	35	12.8	12	4.6	3	4.0	26	5.6	11	8.4	19	13.4	106	48.8
投資殘額 (A-B)	146	68.9	74	38.8	49	18.8	18	15.5	34	31.7	31	116	352	289.6

註: 1) 技術用役提供 및 延拂輸出實績 除外

2) '77년도 이전 실적은 전부 포함.

資料: 韓國銀行

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81년에 대양주에 대한 山林開發投資와 1982년에는 캐나다 및 호주를 중심으로 거대한 資本을 요하는 鑛業에 投資된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業種別 投資比率 現況

(表Ⅲ-2)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投資比率別로 살펴보면 100%의 單獨投資가 總件數의 65%를 차지하여 單獨投資가 일본의 경우에 비해 많은 바 이는 現地파트너의 資源을 活用하여 投資回收의 增大·市場基盤의 強化를 조속히 실현시킬 수 있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合作投資를 많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表Ⅲ-2) 業種別 投資比率 現況¹⁾

(1982.12.31 現在)

(金額:천달러)

투자비율	100 %		50 ~ 100%미만		25 ~ 50%미만		25 %미만		合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鑛 業	7	102,080	1	587	1	340			9	103,007
林 業	2	22,286	7	14,867					9	37,152
水 産 業	4	2,550	8	6,058	12	515	1	90	25	9,213
製 造 業	6	3,857	12	13,268	14	14,103	4	2,223	36	33,451
建 設 業	9	10,415	13	13,640	11	6,377			33	30,432
運輸保管業	12	1,563	2	267	3	912			17	2,742
貿 易 業	169	28,562	14	6,542	9	1,457	2	96	194	36,657
其 他	11	14,532	4	387	5	1,884			20	16,803
不動產投資	9	20,107							9	20,107
合 計	229	205,951	61	55,616	55	25,588	7	2,409	352	289,564
%	65.1		17.3		15.6		2.0		100	

註 1) 技術用役提供 및 延拂輸出除外

資料: 韓國銀行

業種別 投資比率을 보면 貿易業 및 運輸保管業의 경우에는 100%의 單獨投資가 전체 건수에
서 각각 87% 및 71%를 차지하고 있고 資源開發投資인 鑛業部門도 100%의 單獨投資가 9
件중 7件으로서 전체건수의 78%를 占하고 있다.

製造業部門에는 100%미만의 投資가 30件으로全體件數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히 표준화된 技術과 勞動集約的인 生産工程을 活用하는 製品分野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水産業部門에는 50%미만의 投資가 12件으로서全體件數의 52%로 나타났는데 이는 水産業
投資가 단순한 漁獲권터의 확보를 위해 海外直接投資를 하기 때문이다.

3) 業種別·投資規模現況

(表Ⅲ-3)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規模는 投資件數 352件, 投資
額 289,564千달러로서 件當 平均 823千달러의 投資規模를 보이고 있다. 이를 業種別·投資規
模를 보면 20萬달러未滿의 小規模投資가 전체건수의 60.8%를 차지하여 零細性을 면치 못하
고 있다.

(表Ⅲ-3) 業種別 規模別 海外投資現況¹⁾

		(1982.12.31 現在)										(金額: 千달러)	
業種別	規模別	10萬弗미만		10-20萬弗미만		20-50萬弗미만		50-100萬弗미만		100萬弗이상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鑛業		1	80			1	340	2	1,387	5	101,200	9	103,007
林業								3	2,150	6	35,002	9	37,152
水産業		21	921			2	792			2	7,500	25	9,213
製造業		5	259	4	517	9	2,936	6	3,605	12	26,134	36	33,451
建設業		3	83	7	906	5	1,614	7	4,595	11	23,234	33	30,432
運輸保管業		8	457	6	735	1	200	2	1,350			17	2,742
貿易業		104	4,629	42	4,956	30	8,557	11	6,787	7	11,728	194	36,657
其他		8	270	4	567	3	996	3	1,727	2	13,243	20	16,803
不動產				1	155	3	1,000			5	18,952	9	20,107
計		150	6,699	64	7,836	55	16,435	34	21,601	49	236,993	352	289,564
%		42.6	2.3	18.2	2.7	15.6	5.7	9.7	7.5	13.9	81.8	100	100

註1) 技術用役提供 및 延拂輸出除外

資料: 韓國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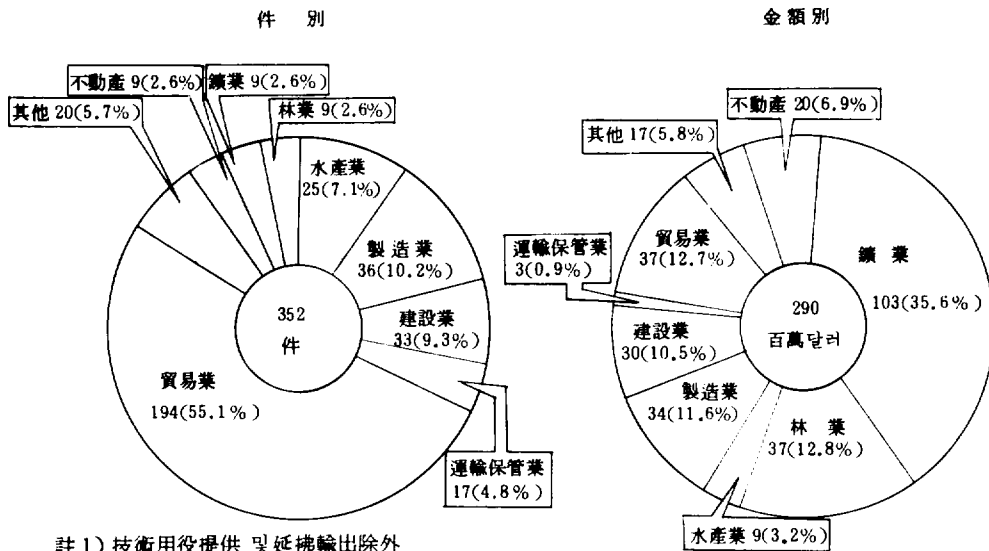
20萬달러未滿의 小規模投資는 주로 貿易業에 集中되어 있는데, 이는 貿易業에 대한 韓國企業
의 海外直接投資가 단순히 現地法人을 本社의 輸出窓口의 役割로서만 活用하기 위한 投資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100萬달러 이상의 大規模投資는全體件數의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100萬달러 이상의 投資業種은 주로 프로젝트(project)推進時 거대한 資本을 필요로 하는 鑛業, 林業, 製造業, 建設業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鑛業의 경우에는 1件當 投資規模가 20,240千달러로 나타나서 全業種중에서 가장 大規模投資事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業種別·地域別 海外海外直接投資現況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業種別로 보면 (圖Ⅲ-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2년말 현재 投資件數面에서 貿易業 55.1%, 製造業 10.2%, 建設業 9.3%의 比重 順으로 구성된 반면 金額面에서는 鑛業 35.6%, 林業 12.8%, 貿易業 12.7%, 製造業 11.6%의 比重 順으로 구성되어 있다.

圖 Ⅲ - 1)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業種別 現況¹⁾ (1982.12.31 現在)



註 1) 技術用役提供 및 延拂輸出除外
資料: 韓國銀行

이렇게 볼때 輸出促進을 위한 貿易業과 製造業, 用役輸出指向型인 建設業과 運輸保管業의 比重을 보면 投資件數面에서 총투자건수의 80%(金額面에서는 36%)의 比重을 占하고 있고 또한 이 중 貿易業投資가 總投資件數의 55%의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韓國企業의 海外投資는 輸出指向的인 特徵을 띠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鑛業, 林業 및 水産業 등 資源開發型投資는 投資件數가 43件으로서 總投資件數의 12%의 比重에 그치고 있으나 金額面에서는 總投資金額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資源開發指向的인 傾向이 짙어가고 있다 할 수 있다.

韓國企業의 海外投資를 地域別로 보면 (表Ⅲ-4)에 보는 바와같이 投資件數面에서는 貿易業이 많이 진출해 있는 北美과 製造業 및 貿易業의 比重이 큰 東南亞에 偏重되어 있다. 投資金額面에서는 東南亞 및 北美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 投資件數에 비해 投資金額이 최저인 것은 投資金額이 적은 貿易業에 거의 投資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Ⅲ-4) 業種別·地域別 海外直接投資現況¹⁾

地域別 業種別		(1982.12.31 現在)						(金額·千달러)	
		東南亞	中東	北美	中南美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計
鑛業	件數	3		2	1			3	9
	金額	1,220		34,430	33,283			34,074	103,007
林業	件數	7		1				1	9
	金額	20,167		700				16,285	37,152
水産業	件數	1		4	9	1	7	3	25
	金額	90		198	3,510	40	5,234	141	9,213
製造業	件數	22	5	3	1	1	2	2	36
	金額	17,924	4,653	900	450	275	7,271	1,978	33,451
建設業	件數	8	17	5			3		33
	金額	3,004	18,155	7,810			1,463		30,432
運輸保管業	件數	5	2	8		2			17
	金額	417	947	1,160		218			2,742
貿易業	件數	51	2	86	4	42	5	4	194
	金額	5,573	458	17,412	1,580	6,677	4,498	459	36,657
其他	件數	4	6	4	4			2	20
	金額	446	1,670	13,843	51			793	16,803
不動產投資	件數	4		2	1	1		1	9
	金額	17,215		2,066	155	210		461	20,107
合計	件數	105(29.8)	32(9.1)	115(32.7)	20(5.7)	47(13.4)	17(4.8)	16(4.5)	352(100)
	金額	66,056	25,883	78,519	39,029	7,420	18,466	54,191	289,564(100)
(%)		(22.8)	(18.9)	(27.1)	(13.5)	(2.6)	(6.4)	(18.7)	(100)

註1) 技術用役提供 및 延拂輸出除外
資料: 韓國銀行

投資業種과 投資地域을 연관시켜 살펴보면 鑛業은 東南亞, 北美, 中南美 그리고 大洋洲에 林業은 東南亞, 北美 그리고 大洋洲에 偏重되어 있고 水産業은 中東을 제외한 全地域을 대상으로 海外投資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中南美와 아프리카지역에의 投資占有比가 38%, 57%로 都合 95%의 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製造業과 貿易業은 東南亞, 北美, 中南美, 유럽, 中東, 아프리카, 대양주등 投資對象地域을 廣範圍하게 設定하고 있는데 製造業은 東南亞, 아프리카지역에 76%의, 貿易業은 東南亞, 北美地域에의 63%의 投資集中度를 보이고 있다.

建設業은 東南亞, 中東地域에 70%의 投資와 運輸保管業은 東南亞, 北美地域에 58%의 投

資集中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料食業·호텔경영등 其他業種으로서는 北美와 中東地域에 92%, 不動產取得은 東南亞, 北美地域에 96%의 投資集中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韓國企業의 海外投資對象地域의 分布相으로 미루어 보면 北美(전체 건수의 32.7%)와 東南亞(29.8%)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유럽(13.4%), 中東(9.1%), 中南美(5.7%), 아프리카(4.8%), 대양주(4.5%)의 順으로 分布되어 있는 바 이른바 資源保有國과 新市場開拓으로 부상되고 있는 地域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進出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2. 投資效果分析

海外直接投資의 效果는 企業의 立場에 서느냐, 一般的인 國民經濟의 立場에 서느냐, 韓國經濟라는 특수한 國民經濟의 立場에 서느냐에 따라 相異하게 分類할 수 있다.¹¹⁾

企業의 立場에서 보면 海外直接投資效果에는 生産要素確保效果, 市場確保效果 그리고 利潤取得效果의 3가지가 있으며, 國民經濟의 立場에서는 企業의 立場에서 본 利潤取得效果가 送金效果로 바뀔뿐 나머지 效果는 동일하다.

韓國의 國民經濟의 立場에서는 韓國이 資本은 부족하고 勞動力은 풍부함으로 일반적인 國民經濟의 立場에서의 效果中 勞動力確保效果와 資本市場確保效果는 海外直接投資의 效果에서 제외될 것이다. 일반적인 國民經濟立場에서의 效果중 이 두가지 效果를 제외한 送金效果, 輸出效果 그리고 輸入效果의 셋으로 나누어 韓國의 海外直接投資效果로 보고 海外直接投資效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그 規模가 小規模 내지 零細의이어서 아직까지는 初期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投資實績에 비하여 그동안 상당히 큰 投資效果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Ⅲ-5)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1982年末까지의 投資效果는 利益金, 賃金 등으로 國內에 회수된 送金效果는 983,591千달러로서 投資額對比 339.7%, 輸出效果는 9,533,362千달러로서 投資金額의 33배, 輸入效果는 4,620,653千달러로서 投資金額의 33배, 輸入效果는 4,620,653千달러로서 投資金額의 16배, 雇傭效果는 14,582명에 이르고 있다.

海外直接投資를 業種別로 보면 送金效果面에서는 投資金額의 339.7%로서 양호한데 이는 運輸·保管業 및 建設業의 投資額對比 各各 2640.6% 및 2589.4%로 가장 높은 外貨稼得率을 나

11) 韓國貿易研究所, 韓國의 海外直接投資促進 方案에 관한 研究, 1975, pp.425 ~ 432

(表Ⅲ-5) 우리나라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送金效果

(1982.12.31 現在) (金額: 千달러)

	投資金額		外貨入金金額					稼得率 (B/A,%)
	件數	金額 (A)	利益金	貸付金利息	賃金	其他	計 (B)	
礦業	9	103,007	-	2,338	-	-	2,338	2.3
林業	9	37,152	23,920	1,015	10,938	14,252	50,125	134.5
水産業	25	9,213	987		18,564	12,788	32,339	351.0
製造業	36	33,451	837	2,246	5,371	11,680	20,134	60.2
建設業	33	30,432	48,643	264	671,080	68,024	788,011	2589.4
運輸製造業	17	2,742	20,761		38,498	13,146	72,405	2640.6
貿易業	194	36,657	3,027	6,260	138	1,598	11,023	30.1
其他	20	16,803	326	14	4,333	638	5,311	31.6
不動産取得	9	20,107	1,361		169	375	1,905	9.5
計	352	289,564	99,862 (10.2)	12,137 (1.2)	749,091 (76.2)	122,501 (12.4)	983,591 (100.0)	339.7

資料: 韓國銀行

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水産業 351.0%, 林業 134.5%, 製造業 60.2%, 其他 31.6%, 貿易業 30.1%의 順으로 外貨稼得率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外貨稼得入金額中 賃金比率이 높은 것은 建設業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寄與度는 89.6%에 이르고 있다. 이는 韓國建設業體의 海外直接投資가 勞動力進出型 投資인 것임을 알 수 있다.

輸出入效果面에서는 (表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實績에서 投資金額의 33배의 輸出效果가 誘發되었고 反面 輸入實績에서 投資金額의 16배의 逆輸入效果가 誘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業種別로 보면 貿易業은 輸出效果面에서 投資金額의 241배에 이르는 높은 輸出波及效果를 올려 市場確保와 輸出增大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反面 輸入效果面에서는 投資金額의 118.5배에 이르는 逆輸入을 誘發시켰다. 이는 貿易業의 海外直接投資가 輸出促進을 위한 現地販賣活動 및 國內의 原資材供給을 원활히 하기 위한 購買活動의 窓口役割이 主目的이었기 때문이다.

建設業과 製造業은 各各 投資金額의 17.6배, 3.71배의 輸出誘發效果를 나타내고 있는데 輸出效果面에서 貿易業다음順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國內에서 施設資材 및 部品을 現地に 많이 조달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材業은 輸入效果面에서 投資金額의 5.56배로 貿易業에 이어 크게 나타난 것은 林業分野가 資源開發型投資로서 輸出用原資材의 安定的 供給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表Ⅲ-6) 우리나라企業の 海外直接投資의 輸出入効果 및 雇傭效果

(1982.12.31 現在) (金額:千달러)

區分 業種	投資金額		輸出實績		輸入實績		倍數		韓國人就業	
	(A)	%	(B)	%	(C)	%	B/A	C/A	現人員	%
鑛業	103,007	35.6	6,106	0.06	18,325	0.40	0.06	0.18	23	0.16
林業	37,152	12.8	8,174	0.09	206,691	4.47	0.22	5.56	191	1.31
水産業	9,213	3.2	8,031	0.08	20,353	0.44	0.87	2.21	891	6.11
製造業	33,451	11.6	124,050	1.30	28,375	0.61	3.71	0.85	491	3.37
建設業	30,432	10.5	536,971	5.63	2,337	0.05	17.64	0.08	11,700	80.23
運輸保管業	2,742	0.9							231	1.58
貿易業	36,657	12.7	8,846,831	92.8	4,344,367	94.02	241.34	118.51	845	5.80
其他	16,803	5.8	255	0.01	205	0.01	0.02	0.01	119	0.82
不動產取得	20,107	6.9	2,944	0.03		1			91	0.62
計	299,564	100	9,533,362	100	4,620,653	100	32.92	15.96	14,582	100

資料: 韓國銀行

雇傭效果面에서 1982年末 現在 14,582名의 人力進出을 誘發하고 있는 바, 이는 建設業分野에서 全體就業人員의 80%의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輸出市場確保를 위한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方向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韓國企業이 주요 資源의 長期安定的 供給基盤構築과 輸出不振打開을 위한 海外直接投資의 必要性이 強調되면서 韓國企業들이 海外直接投資가 推進되고 있다. 또한 企業의 側面에서 보더라도 經濟成長에 따른 企業의 大型化 내지 多國籍企業化의 必要性에 따라 向後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활발히 進行될 것으로 豫상된다.

그러나 韓國企業이 海外에 直接投資를 수행하는 동안 그 實績 및 制度面에서 다음의 몇 가지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1) 投資實績의 低調

1982年末 現在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殘額은 352件에 290百萬달러에 불과하여 日本의 1980年末 投資殘額은 196億달러이나, 美國의 1981年末 投資殘額 2,321億달러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先進國中 海外投資後開發國이라 할 수 있는 日本과 비교하여서는 1960年代 初期의 日本의 海外直接投資水準에 있다 하겠다.

2) 合作投資의 未洽

韓國企業이 海外直接投資를 함에 있어서 單獨投資가 全體件數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投資財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合作投資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合作投資를 함으로써 좀더 많은 市場國에 進出할 수 있으며, 現地파트너가 그 市場에서 가진 經驗이나 既存의 販賣經路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資本이나 人力등의 分割負擔으로 해서 投資企業의 資源 및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3) 投資規模의 零細性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投資規模別로 보면 100萬달러 이상의 大規模投資는 全體投資件數의 13.9%에 그치고 있는 반면 20萬달러未滿인 小規模投資는 全體件數의 60.8%를 占하고 있는 바, 이 중 68%의 投資가 小規模資本金으로서 現地金融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貿易業에 集中되고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貿易業의 거의 모두가 國內輸出業體의 海外支社性格을 띠고 있어 輸出入業務가 主目的으로 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4) 製造業投資比重的 未洽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中에서 무엇보다도 投資效果가 높은 製造業投資가 1982年末 現在 投資件數에 있어서 全體件數의 10.2%, 投資金額에 있어서는 11.6%의 水準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71년에 國內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製造業體인 味元을 始發로 해서 지금까지의 짧은 年輪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現象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產業構造와 有機的 關聯性이 缺如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製造業部門의 投資가 未洽하고 貿易業이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本格化되지 못하고 있는 原因이 되고 있다 하겠다.

5) 地域的 偏重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對象地域을 分布相으로 미루어 보면 北美에 全體件數의 32.7%와 東南亞地域에 全體件數의 29.8%로 都合 62.5%의 投資가 集中되어 兩地域에 偏重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資源保有國과 新市場開拓으로 부상되고 있는 地域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海外進出이 크게 뒤지고 있다 할 수 있다.

6) 鑛業資源開發輸入의 不振

韓國의 海外直接投資는 資源開發部門에서 부터 시작했으므로 海外資源開發의 歷史는 他部門에

비해서 긴 편이다.

그러나 1977년까지는 山林開發部門을 제외하면 資源確保를 위한 投資가 全無하였으나 1979년 이후 유연탄을 중심으로 한 鑛業投資가 활발해져 특히 1982년에는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급증, 年間 海外投資件數面에서 12.9%에 그치고 있으나 投資金額에 있어서는 69%의 비중을 차지하여 資源開發投資가 本格化 傾向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鑛業資源開發輸入은 不振한 狀態이다.

이상과 같이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諸問題點을 안고 있는 근본적인 原因은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經營收支가 慢性的인 赤字狀態에 있는 狀況에서 海外直接投資를 위한 資金調達에는 어려움이 많은 점, 둘째 海外直接投資의 主體인 民間企業의 國際經營能力未熟과 海外進出經驗不足, 셋째, 金融, 稅制面 等에서의 支援體制的 未洽, 넷째 投資對象地域 및 業種에 대한 事前妥當性調査未洽 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海外直接投資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資本過剩國으로 부터 資本不足國으로 向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國內貯蓄이 不足하여 外國資本을 導入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海外直接投資를 과감히 擴大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¹²⁾

2. 輸出市場確保를 위한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方向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1968년이래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本格化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海外直接投資가 장기적인 眼目에서라기 보다는 輸出促進策의 일환으로서 단기적 利益을 추구하는 小規模貿易業에 치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이런 現地法人들의 活動이 輸出伸張에 기여한 바는 컸지만, 이것 만으로는 現國際經濟環境下에서의 輸出市場確保 등의 한 방법으로서 海外直接投資의 役割을 전부 遂行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關稅 및 非關稅障壁等에 효과적으로 對處하기 위한 製造業部門 및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實績이 不振하고 輸出代替型投資와 關聯된 海外進出도 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輸出伸張을 통한 自立經濟의 基盤을 構築하기 위해서는 安定的인 資源確保와 아울러 확고한 輸出市場確保의 努力이 展開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製造業部門, 資源開發部門, 輸出代替型部門을 중심으로 다음의 몇가지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1)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回避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輸出伸張이 完製品위주로 이루어져 온데 반해 世界各國의 自國產業保護

12) 潘柄吉, 前掲書, pp.247 ~ 248

를 이유로 完製品 輸入規制等 保護貿易措置의 強化가 점점 增加趨勢에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對韓輸入規制措置를 실시하고 있는 國家 또는 第3국에 規制對象品目の 生産工場을 設置, 原材料, 部品등을 輸出하여 現地에서 單純組立하고 製品을 生産함으로써 完製品에 대한 數量制限 또는 安티·덤핑稅 等の 各種 輸入規制를 回避할 수 있는 한편 지금까지 輸入規制 對象 國家에 包含되지 않는 아시아, 中남미地域의 後進國등에 進出하여 迂廻輸出據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輸入規制對象品目으로서는 '83年 5月末 調査에 의하면 주요 20個國으로 부터 162個 品目이 輸入規制를 받고 있는 바,¹³⁾이중에서 製造業投資에서 成功한 좋은 예를 들면 衣類인 경우 德盛貿易(株)의 對스리랑카投資, 電子製品인 경우 '81年 4月 금성사의 美國알라바마에 現址 別갈라TV組立工場등을 들 수 있으며, 한편 現地工場을 통한 迂廻進出의 據點의 좋은 예로서 삼성이 EC地域의 進出據點을 확보하기 위해 포르투갈에 現地合作으로 갈라TV工場設立을 들 수 있다.

2) 比較劣位産業의 海外移轉

우리나라의 比較優位構造의 高度化에 대비하여 比較優位가 弱化되고 있는 産業은 後發開發國으로 順次的으로 移轉하여 投資國과 受入國双方의 比較優位를 補充,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製造工業에 대한 海外直接投資도 섬유, 의복, 鐵鋼加工 등 比較優位가 弱化된 傳統 産業인데, 이것이 東南아시아의 저렴한 勞動力을 활용하여 일본으로서는 機械設備, 노우·하우(know how), 中間財 등을 輸出할 수 있었다.¹⁴⁾

이렇게 볼때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單純勞動集約的인 産業인 봉제, 신발, 완구, 합판 등의 業種을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後發開發國에 순차적으로 移轉하여 國內産業의 高度化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의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機械設備, know how, 中間財 등의 誘發輸出을 促進하게 될 것이다. 그 좋은 예로서 鮮京木材, 大明木材등의 合板製造業에 대한 인도네시아投資를 들 수 있다.

3) 自由貿易地帶進出

多數의 國家들이 自國의 工業化를 위한 投資誘致를 위해 현재 中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中동 등 世界 49個國에 설치되어 있는 118個 自由貿易地域에의 進出도 적극 推進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¹⁵⁾

自由貿易地帶는 各地帶에 따라 入住與件의 相異할 것이나 일반적인 進出上의 利點은 關稅 및

13) 韓國貿易協會, 貿易, 「最近의 保護貿易動向과 우리의 對應」 1983, 6, p.13.

14) 玉璫鍾, 多國籍企業經營, 1982, p.82

15) 韓國貿易協會, 貿易, 「'83年貿易振興綜合施策方向」, 1983,3, p.20

各種稅金의 減免, 諸般生産要素의 廉價調達, 備蓄販賣를 통한 小量注文과 適期引渡問題의 解消 등을 들수 있는 바 韓國企業은 中南美 및 阿中東 등의 풍부한 資源을 이용한 製造業分野에의 合作進出로 生産原價切減을 통해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北美 및 EC市場의 對韓輸入規制品目에 對한 迂廻輸出을 可能하게 할 수 있는 등 隣近市場進出의 前哨基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8개국의 自由貿易地帶에 15個 業體가 진출하고 있는데¹⁶⁾ 向後 同地帶에 進出possible한 進出對象地域과 業種을 선정하여 重點支援을 해야 할 것이다.

4) 原資材의 長期安定的 確保

資源의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原資材의 安定的 確保를 위한 海外直接投資가 積極적으로 推進되어야 하겠다. 이는 海外資源開發輸入뿐만 아니라 資源保有國에 合作投資를 통해 加工工場을 設立하여 部品 또는 加工原料를 生産하여 이를 國內에 供給토록 함으로써 國內完製品 製造業體와 有機的關聯性을 갖게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原資材確保問題는 지속적인 輸出市場을 確保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要素이기 때문이다. 이의 좋은 예로서 제일모직이 '80年들어 羊毛生産國들이 減小되면서 價格이 引上되자 1981年에 羊毛生産國인 호주의 골번시에 F & G社와 合作으로 羊毛加工會社의 設立을 들 수 있는데 羊毛加工은 運送料와 公害問題로 인해 先進國에서는 대부분이 現地 法人을 통해 羊毛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5) 中小企業에 대한 重點投資

韓國企業의 製造業部門에 대한 海外直接投資에서 成功한 경우를 보면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國產部品를 가져다 現地에서 完製品을 製造하여 저렴한 價格으로 供給할 수 있는 小規模 製造業이 成功率이 높다. 이는 주로 對後發開發途國投資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受入國의 협소한 市場을 상대로 中小企業型 技術·經營 등을 現地에 投入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들 국가에는 大規模의 企業보다는 技術移轉이나 雇傭擴大를 위해서 波及效果가 큰 中小規模의 企業이 훨씬 效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된 小規模投資의 높은 비중이라는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과 相馳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小規模投資의 대부분이 現地金融 等に 依存, 活動하고 있는 貿易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 自己資本貧弱등에 따른 赤字運營의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本社와는 별개의 實地적인 獨立採算에 의해 높은 收益性 등을 기대할 수 있는 中小企業部門에 重點적인 投資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向後 中小型現地子會社는 本社의 마케팅機能에 따라 先進國市場으로 대거 침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6) 韓國貿易協會, 前掲書, p.20

6) 用役輸出市場確保

雇傭擴大效果뿐만 아니라 賃金等 外貨稼得效果가 큰 用役輸出市場確保를 위한 投資가 계속해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先進國은 풍부저렴한 勞動力을 찾아서 海外로 進出하는데 反해 韓國의 建設業體 및 運輸保管業等은 現地法人을 통해 우리나라의 勞動力을 輸出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도 先進國에 비하여 比較優位를 지니고 있는 部門이 勞動力이기 때문이다. 建設業 및 運輸保管業에 대한 投資는 그동안의 外貨稼得實績이 總實績의 2.615%의 曄목할 만한 投資效果를 실현하여 國內經濟成長에 밑받침이 됐을 만큼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向後 中東建設이 위축되면서 海外就業人口가 國內에 밀려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中東偏重에서 脫皮, 市場을 多變化하고 量的인 受注實績에서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技術集約工事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石油危機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新保護貿易主義와 資源保有國의 資源民族主義가 점차 世界的으로 膨湃되어 감에 따라 賦存資源의 貧弱, 人口過剩, 國內市場의 狹小등 經濟與件上 對外指向의 經濟成長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立場에서 볼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날로 높아지는 世界的인 新保護貿易主義와 資源民族主義의 障壁을 打開하기 위해서 比較優位產業의 海外活用을 통한 지속적인 輸出市場確保와 原資材의 安定的인 供給確保를 위한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必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할 것이다.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1968年 韓國南方開發이 인도네시아에 山林開發을 시작한 이래 15년의 歷史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海外直接投資는 長期的인 眼目에서라기 보다는 輸出促進策의 일환으로서 短期的利益을 추구하는 小規模貿易業에 치중한 결과 이는 現國際經濟環境下에서 輸出市場確保등의 한 方法으로서의 海外直接投資의 役割을 전부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關稅·非關稅障壁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製造業 및 資源開發部門에 대한 投資實績이不振하고 輸出代替型投資와 관련된 海外進出도 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對外指向의 工業化戰略을 통한 自立經濟의 基盤을 구축하기 위해서 海外直接投資의 方向은 첫째 對韓輸入規制措置를 실시하고 있는 國家 또는 第3國에 合作投資를 통한 規制對象品目의 生産工場을 設置, 原材料·部品등을 輸出하여 現地에서 單純組立, 製品生産을 함으로서 各種輸入

規制를 피해야 하겠고, 둘째 比較劣位産業을 後發開途國으로 순차적으로 移轉시키는 반면 先進技術導入을 위한 先進國에의 合作投資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國內産業의 高度化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셋째 多數의 國家들이 自國의 工業化를 위한 投資誘置를 위해 설치한 自由貿易地帶를 활용하여 輸出을 增大시키도록 하여야 하겠고, 넷째 原資材의 安定的確保는 지속적인 輸出市場確保에 필수불가결한 要素이므로 資源開發輸入뿐만 아니라 資源保有國과의 合作投資를 통해 加工工場을 설립함으로써 國內完製品製造業體와 有機的 關聯性을 갖게하는 것도 중요시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技術移轉이나 雇傭擴大面에서 과급효과가 큰 中小規模의 企業에 集重投資를 기해야 하겠으며, 여섯째 雇傭擴大뿐만 아니라 外貨稼得效果가 큰 用役輸出市場確保를 위한 投資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함에 있어서 海外直接投資의 主體는 企業이므로 韓國企業은 資本, 技術, 經營能力을 가지고 長期的인 眼目에서 海外市場에 눈을 돌려 海外進出을 積極 모색해야 하겠고 이와 동시에 政府次元에서도 海外投資資金에 대한 金融支援提供과 海外進出의 事前妥當性調査를 위한 情報蒐集提供機能強化, 對外交渉仲裁支援등 다각적인 支援體制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Firms
— with an emphasis on securing export markets —**

by Won-suk Moon

Under the unfavorable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with ever-increasing worldwide neo-protectionism and the nationalizing of oil & other resources the necess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firms will be more and more emphasized as a positive means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in order to secure continuous export markets and oil & other resources suppli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thesis reviews theoretical outlin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firms,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an emphasis on securing export markets.

The dire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avoid measures of import restrictions to Korea through joint-ventures with other countries and the third countries practicing measures of import restrictions;

Second, we need to transfer the disadvantaged indus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invest in advanced nations through joint ventures to import advanced technology;

Third, we need to extend our business to free trade zones;

Fourth, we need to secure continuous raw materials;

Fifth, we need to invest a large proportion of capital investment in small businesses;

Sixth, we need to make a continued investment to secure labour-export markets.

In promo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by Korean firms, and since the main group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uld be propelled by business enterprise, Korean firms should find ways to extend their businesses in overseas markets with the capital,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capability for the future; and, at the same time, the multilateral supporting system at the governmental level should be followed to finance the foreign direct capital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data collection ability for the prior investigation of validity of Korean firms advancement toward overseas markets and to assist Korean firms in negotiations and bargaining with foreign countries.